



보도자료

4월 1일(금요일)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배 포 일	2022. 3. 31.	사진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수 : 3 매		
담당	강원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유혜정	joung4@rig.re.kr 033-250-2982

강원학연구소 · 국립춘천박물관 · 영월군청 공동전시

강원의 미소,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 강원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중) 강원학연구소(소장 유재춘)는 국립춘천박물관, 영월군청과 공동으로 ‘강원의 미소,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 전시되는 사진 자료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의 나한상들을 사진으로 담은 것으로, 2021년에 영월 장릉의 야외 사진전을 위해 제작된 자료를 영월군청으로부터 협조받아 전시한다.
- 전시 기간은 2022년 4월 4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 약 2개월이며, 전시 장소는 강원연구원 1층 RIG GALLERY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하였다.
- 이번 전시를 통해 강원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붙임

전시 자료

이번 전시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담은 얼굴'의 나한상들을 사진으로 담은 것이다. 볼수록 정이 가는 나한의 모습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한층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기쁨에 찬 나한과 명상에 잠긴 나한, 순진무구한 아이와 같은 표정의 나한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잠자고 있는지 모를 나한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몸과 마음 모두 지친 사람들에게 '창령사 터 오백나한'이 주는 안전한 미소 한 조각이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가의 진리를 깨우쳤지만 일상 속 평범한 모습을 한 창령사 터 오백나한은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국립춘천박물관 브랜드실에서 만날 수 있다. 현재 창령사 터 오백나한 가운데 수퍼스타 오심 분과 부처님 한 분은 한-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호주 파워하우스뮤지엄에서 공동전시 중이다.

강원학연구원 · 국립춘천박물관 · 영월군청 공동전시

강원의 미소,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세상에 나온 창령사 터 오백나한의 발자취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창령사 터 오백나한_당신의 마음을 담은 얼굴'은 신문, 방송, 잡지사 등 88개 매체에서 207건 이상 보도되었으며, 이는 단일 전시에 대한 보도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2019.10.11. 강원도인일보 보도)

2018년 8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개최된 국립춘천박물관의 '창령사 터 오백나한'에 대한 특별전은 문전성시를 이루어 2019년 3월 31일까지 관람 기간을 연장하였다.(2018.08.27. 및 2018.11.28. 국립춘천박물관 보도자료)

2018년 국립박물관 특별전시 가운데 탁월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전시로 선정되었다.(2019.04.29. 경향신문 보도)

2019년 4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초대 전시회에는 총 관람 인원 4만 8,257명,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관람, 국립중앙박물관 유료 도록 3,000부 매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2019.06.20. 중앙일보 보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박물관 기증전시실에서 개최된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담은 얼굴' 부산 전시는 영월 창령사 터에서 발굴된 나한상과 현대작가 김승영의 협업으로 선보임으로써 과거와 현대가 서로 현대 어우러져 호흡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2019.09.30. 국립춘천박물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7일에는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실을 개관하여 상설전시하고 있다.(2019.12.27. 및 2020.07.06. 국립춘천박물관 보도자료)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에서 특별전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담은 얼굴' 영월전시를 개최하였다.(2020.10.27. 국립춘천박물관 보도자료)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호주 파워하우스뮤지엄에서 한-호 수교 60주년 기념 공동 국외전시 '창령사 터 오백나한 Five Hundred Arhats of Changnyeongsa Temple'가 열리고 있다. 호주 현지에서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021.12.17. 국립춘천박물관 누리집 전시/행사 안내)



창령사 蒼嶺寺

창령사는 적어도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조선전기에도 가장 번성했던 사찰로 파악되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전기(1530년)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당시 영월 관내에 경영되고 있었던 사찰 3곳을 기록하고 있는데, 홍고사(洪高寺), 보현사(普現寺)와 더불어 창령사(蒼嶺寺)가 조선전기에 존속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숙종대 제작된 『동여비고(東輿備考)』에서도 사찰명이 확인되고 있어 최소한 조선 중기까지 존속하였던 사찰로 파악된다.

사찰의 규모도 작고 산골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조 오백나한상을 봉안할 정도로 당시 창령사의 불교사적인 위상은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여비고(東輿備考)』에 등장하는 창령사
(『蒼嶺寺』,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창령사 터 발굴조사지역 전경
(『蒼嶺寺』,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창령사 터의 발굴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2리에 위치해 있는 창령사 터는 해발 400m에 위치한 산지가람의 사찰로 그 동안 무덤처럼 정터로만 전해져 왔을 뿐 정확한 사찰의 명칭을 알 수 없었던 절터였다. 이 절터는 토지소유자가 이 지역에 사찰 신축을 위하여 경작지의 평탄작업을 하던 중 다량의 나한상들이 출토됨에 따라 알려지게 되었다.

2001년 5월에 강원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 문화재청의 제2차 현지조사를 통해 그 해 9월에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을 실시해 훼손된 나한편 300여 점과 ‘출출(出出)’이 새겨진 기와를 확인하여 이곳이 조선 초기까지 존속되다가 중기 이전에 폐사된 창령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20일간의 긴급수습조사에서 나한상이 추가로 출토되는 한편 나한상을 봉안했던 나한전터와 그와 관련된 배수시설 그리고 석축 및 보도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발굴조사가 결정되어 2002년 8월에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창령사 유적은 발굴조사 후 강원도 기념물 제81호로 바로 지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한이란?

Arhan, Arahan, Arhat을 음역한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성자를 뜻하며, 석존이 입멸한 뒤 처음으로 석존의 가르침을 위는 결집(結集)을 행한 고명한 제자 오백인을 오백대아라한이라고 부른다.

나한신앙은 보편적인 불교 신앙의 하나로, 부처의 제자로서 뛰어난 수행 끝에 구극(舊)의 경지에 이른 사리를 일컫는 나한은 점차 신통력을 갖춘 존재로 인식되어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지고 승배의 대상이 되었다. 나말여초부터 신앙화 되기 시작하여 고려와 조선에 걸쳐 중요한 불교 신앙의 하나로 정착하였다.

고려시대의 나한 신앙은 재난 구제와 관련하여 기우(祈雨)와 왕실의 장수, 외적의 퇴치 등 국가와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재앙으로부터의 해방과 복락의 추구, 장수라는 기복적인 요소와 함께 극락왕생과 깨달음의 성취라는 종교적 의의가 부가된다. 심유나한을 중심으로 나한상(阿羅漢像)과 나한도(阿羅漢圖)를 봉안하였으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나한상 중 원래 봉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예는 조선후기 것이 대부분이다.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석조문화재이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한상과 나한전터가 함께 발굴된 유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의 조성 시기는?

영월 창령사 터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2호 건물로 15세기 초로 판단되고 있다. 나한상의 제작 시기와 건물터의 연대를 관련해 본다면 15세기에 나한상을 봉안하였으며, 그 후 1호 건물을 중축하여 나한전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1호 석축 축조기인 12세기에 나한상이 이미 조성·봉안되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영월과 같이 크기 않은 지역에서 오백나한 조성이라는 대규모 불사의 시대적 배경이 해결(解決)이 만연하던 15세기 이기보다는 불교가 위세를 떨치던 12세기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지만, 나한상에 대한 양식사적 검토와 창령사 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보완되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 전서집 사진들은 2021년 7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영월 영월에서 열었던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상과 마름을 담은 영공 사진전에 전시되었던 자료들을 영월군청으로부터 협조 받았으며, 사진자료는 국립춘천박물관으로부터 승인받았음을 밝힙니다.

* 전서집의 작성은 『蒼嶺寺』, 문화재청·강원도·영월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와 『영월 창령사 터와 오백나한의 가치제고 및 활용방안 연구』, 강원학연구원, 강원연구원 한민보고, 2020, 『창령사 터 오백나한, 내내게로 가는 길』, 국립춘천박물관 창령사 터 오백나한 상설전시도록, 국립춘천박물관, 2019를 참조하였다.